



“동성애는 죄악! 동성애 확산 저지!”

창조질서 회복, ‘동성애’ 이 땅에서 뿌리 뽑아야

동성애 저지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및 국민대회

동성애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대(조직위원장 송준길 목사)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이희희 교수) 두 단체가 또 다시 연대



하여 지난 9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앞 대 한문(역수궁 정문)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되는 동성애 퀴어축제를 저지, 대응 하기 위해 나섰다.

4천여 성도들과 시민 등이 서울시청 앞 대한문(역수궁 정문) 광장에 모인 가운데 열린 한국교회 대연합기도회 및 국민대회는 오전 11시부터 경배와 찬양, 말씀선교회 주관 기도회,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대 대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땅에 물드는 패역한 무리들의 그릇된 성문화에 대해 그동안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방관해 왔던 우리들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바른 신앙,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동성애를 이 땅에서 뿌리를 뽑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예배는 동연대 조직위원장 송준길 목사의 사회로 합동호남협의회장 김광식 목사의 기도, 임순창 목사의 성경봉독, 세계무대부흥사회 총재 신정희 목사의 말씀선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롬 1:26-27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왜 동성애를 막아 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자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것을 강조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국민대회는 합동호남협의회 서기 정현택

목사의 기도, 광산대 법인이사장 정태영 목사의 대회사, 이근호 목사(중앙총회 부총회장), 맹연환 목사(광주광역시교단협의회 회장), 김상기 목사(전북기독교회 회장)의 규탄사, 교단 중경부총회장 최철권 목사의 규탄구호제창, 최병국 목사(백석 증경총회장)의 인사말, 특별기도, 성명서발표, 부산보수교단협의회장 박홍석 목사의 격려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대회는 국민대회, 문화공연, 규탄집회 등이 밤 11시까지 계속 이어졌으며 이 땅에서 동성애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그릇된 길로 갔던 동성애자들이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다.

지금은 기독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동성애가 인권존중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임을 알게 하여 확산을 막고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기독교회가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동성애는 천벌 받을 죄악임과 죄악의 불요이며 패륜임을 외쳐 주어야 한다.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는 오는 6월 28일(주일) 오후 3시에 시청광장 앞 대한문(역수궁 정문)에서 동성애저지를 위한 한국교회대연합기도회와 한국교회 1일 연합예배를 드린다.



조용목 목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6~12)

본문 말씀에서 일생동안 믿음의 길을 달려간 바울의 모습, 중도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데마에 관한 미운 이야기 그리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에서 역주하는 디모데, 그레스케, 디도 등의 이름을 접하게 됩니다. 왜 어떠한 사람은 한평생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일까요?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울 사도처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둘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신앙을 쌓고 정신 안정을 얻기 위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셋째,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잘되고 부유하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생 얻는 것이 신앙을 가지는 이유 가운데 중대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찾는 사람은 위선적인 교인이 되거나,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돌아갈 기회를 만들고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영생의 떡을 발견하고 이를 먹은 사람들은 다른 것에 결코 유혹되지 않습니다.

둘째,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데 있어야 합니다. 수년간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폭 빠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려 해 동안 주님을 섬기다가 세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오면 떠나가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신자에게 주어진 의무와 희생이 매우 작은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영영히 섬기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셋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을 가지는 이유 가운데 중대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로 지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신자는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여러 단체나 모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살지만 마음은 늘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성도가 되면 세상 것 다 취도 천국가는 신앙과 비유하지 않습니다.

넷째,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에 충실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혹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살피게 되면 그릇된 신학사조를 쫓게 되며 혼잡하게 된 교리를 받아들이기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간교한 마귀의 유혹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성경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고의 목적이 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계절학기, 청소년 비전캠프 등 점검



64차 총회 제1회 임원회

교단 64차 총회 첫 번째 임원회가 지난 1일(월)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회의실에서 열려 새로운 회기를 봉사와 헌신으로 이끌어갈 사명과 각 오를 다지는 한편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회장 진동웅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조원익 목사의 대표기도,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요 15:1-6 말씀을 본문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바른 신앙과 신학으로 임원들이 확고한 자세로 회원들을 이끌

어 주면 교단은 더욱 든든히 서갈 것임을 강조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총회장 진동웅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회원점명, 개회선언, 총무보고로 이어졌다.

총무 김병목 목사는 교단업무보고사항으로 64차 정기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지러졌음을 보고하고 총회 때 각 교회와 지방회, 기관의 후원에 감사드리고 해외선교사 목사안수, 제5회 전국사모연합회 정기총회 개최와 기독교단협의회 회의 육군 12사단 을지부대 위문내용 등이 보고되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역자복귀 청원,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회폐해 청원, 선교사기입 청원 등의 사항이 결의되었다.

이어 임기를 마친 총회 각 국장과 위원장의 인선이 있었으며 전국교역자회의의 분구 내용이 보고되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2015 전국여성성금시청회 개최여부 건과 제3회 청소년 비전캠프 개최 건, 총회 목회대학원 상반기 계절학기 개설, 통일교육 참가신청 건, 부병중인 사모 진료비 지원요청 건, 64차 총회 제1회 집행위원회의 개최 일정 등을 결정하고 64차 총회 첫 번째 임원회의를 모두 마치고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정성껏 제공한 요찬을 함께하며 한 회기동안 잘지러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2015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상반기 계절학기 개설 안내

- 일 시 : 2015년 7월 13일(월) ~ 17일(금) 4박 5일
- 장 소 : 본 대학원 301호 강의실
- 강 사 : 본 대학원 원장 임종달 목사,
직전 총회장 김용덕 목사 외 3명
- 등록마감 : 2015년 7월 8일(수) 17:00
- 기 타 : 재학생은 무료, 미 취득 학점이 있을 시 학점 대체함
- 문 의 : 02)2677-0692~3(본 대학원 행정실)
- 선교헌금 : 1,200,000원
- 선교헌금 입금계좌 : 농협 302-0928-2133-91 임종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목사 임종달

JTBC·경향신문 기독교 편파보도 강력규탄

공익성 벗어나 노골적으로 동성에 조장



나리사랑&자녀사랑운동대 조직위원장 송준길 목사는 지난 5월 28일 오후6시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교계기자 회견을 갖고 동성애 관련에 대한 JTBC·경향신문의 기독교 편파보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송준길 목사는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 지적하고 말하는 사람을 적만하장도 유분수지 방송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지 못한 크나큰 편파보도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JTBC의 경우, 집회신고 대기 장소에서 2인1조로 조용히 대기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회를 파렴치한 잡범으로 보도하고 이와 반대로 몰려와 있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편을 들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목사는 “어린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할 공익성을 띤 JTBC 방송이 청소년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레즈비언 랩시스를 방송한 것은 청소년들을 그릇된 길로 빠져들게 조장하는 오직 시청률과 상업성에 눈이 멀어버린 도가 지나친 처사”라고 규탄했다.

송 목사는 또 “경향신문 역시 예외는 아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백주대낮에 발거벗고 거리를 행진하는 것이 옳고 맞다고 생각하는가?”고 반문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 말하고 잘못에 빠져있는 우리네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바른 길로 견제하는 것이 마땅한 사회적 책임이다. 이러한 행

동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기독교회를 마치 법을 어기는 잡범처럼, 기독교회를 비난하는 처사는 공익성을 띤 신문과 방송으로 그 수준과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송 목사는 이어 “이곳 남대문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신촌에서 동성애 퀴어축제 때 경찰이 나타나보인 태도는 대한민국 경찰이 언제부터 동성애 호위병이 되었나? 할 정도로 편파적인 심한 행동을 나타내 보였다. 다가오는 6월 9일과 28일에 있게 될 동성애 퀴어축제 때에는 대한민국 경찰이 다시는 작전과 같은 편파적인 행동에 주의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할 남대문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송 목사는 끝으로 “교회는 동성애를 무서운 죄악으로 멀리하는 반면 동성애에 빠져있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동성애라고 하는 잘못과 죄와 형벌에서 간제내어 정도에 이르게 구원하려는 의의 행동이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만연한 동성애 확산병자와 동성애에 빠져있는 우리의 소중한 아들, 딸들을 간제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굳게 세워 하나님의 뜻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뜻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메르스 저지 위해 한국교회 기도해 달라

한교연 ‘메르스 관련 성명서’ 발표, 퀴어문화축제 중지 요청 공문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지난 4일 메르스 확산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감염자들이 조속히 치유되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교연은 성명서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감염에 대한 공포와 함께 온갖 괴담이 난무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병 초기에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감염자와 감염 의심자가 속출하고 격리 수용과 병원에서 치료의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람에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교연은 다수의 군중이 모이게 될 퀴어축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메르스 감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퀴어축제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또한 “차제에 우리는 오는 6월 9일 서울광장에서 계획된 동성애 퀴어축제를 취소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 동성애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기독교계를 비롯한 많은 단체에서 수만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메르스 감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퀴어축제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성애 지지회 원들이 벌이는 나체 퍼레이드와 온갖 음란한 퍼포먼스가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성명은 끝으로 “메르스 감염 환자가 경기도 지역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장 이번 주말에 회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확인된 메르스 환자 30명은 전부 병원에서 옴은 원내 감염자”라면서 “무작정 공포감을 가지고 외부와 접촉을 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회와 일선만 성도들은 한국 사회에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격리 수용된 감염자들이 조속히 완치되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한교연은 4일 보건복지부 분향포장관에게 “메르스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퀴어문화축제 중지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서 한교연은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축제로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부합하지 않고 메르스의 확산을 조속히 차단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배치되는 행사”라면서 “각종 행사가 자진해 연기 또는 취소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행사 개최를 고집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귀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예방과 확산 방지 차원에서 동행사의 중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성서공회, 제123회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장에 이정익 목사 등 이사 선임



대한성서공회 제123회 정기이사회가 지난달 26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어 이사장에 이정익 목사를 선임했다.

1부 기도회에서는 이윤희 목사(예장통합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무)가 “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회부처리에서는 신 이사 중 교단대표로 김용 목사(한국기독교교장로회), 우영준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우창준 목사(기독교대한성경교회), 한국동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이정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가 선임되고, 찬성회원 대표로 이정

익 목사, 김경원 목사, 이용호 목사, 이만영 장로, 광철원 장로, 감사로는 송영훈 장로가 선임되었다. 이어서 권의현 사장의 사장 보고와 사업보고가 있었다.

안건으로는 교단대표로 김상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이사 선임이 있었다. 그리고 신임원으로 이사장에 이정익 목사, 부이사장에 손인웅 목사, 서기에 이용호 목사, 회계에 이선균 목사, 실행위원에 김순권 목사, 김동권 목사, 김현배 목사, 정하봉 목사, 우창준 목사, 한국동 목사가 선임되었다.

권 사장은 보고를 통해 지난 5월 3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성서출판회의에 대해 “교회가 성정하는 지역과 약화되는 지역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그리고 보다 의미 있게 반포하기 위한 성서공회들의 다양한 성서출판 활동을 소개하고, 각 성서공회의 형편에 맞는 출판의 방향을 모색하였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성서 보급 현황에 대해서는 “상반기 국내 성경의 보급 부수는 지난해 동기간에 비하여 9,656부(2.5%)가 증가한 396,148부이며, 상반기 해외성서 보급은 91개 국가에 124개 언어로 총 3,100,544부의 해외성서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다”고 보고했다.

이밖에도 각 성서공회들의 성경 출판을 돕기 위해서 여러 언어의 성경 조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지립성서공회 성서 기증 사업 및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한글 성경전서〉(기정) 번역에 대해서도 2012년 12월 기정 〈새한글 성경전서〉의 번역을 시작한 이래로 4월 말 현재 기초 번역은 98%가 진행되었고, 25%의 번역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소개했다.

2015라이즈업코리아 823대회-다음세대 부흥 도모

오는 8월 23일 오후6시 서울시청 광장



청소년 선교단체 라이즈업무브먼트(대표 이동현 목사)가 주최하는 ‘2015라이즈업코리아 823대회’가 지난 2일 막을 연 ‘2015라이즈업코리아대회 키오프’를 시작으로 대회 성공을 위한 출발의 합점을 올렸다.

‘라이즈업코리아 대회’는 한국교회의 미래이자 주역인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통한 새로운 대안을 찾자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세상적인 스펙에나 경험을 쌓

기 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야심있는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라이즈업코리아 대회’는 일련의 대형 집회가 보여주는 세 과시가 아닌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순수한 열정과 에너지로 집회가 열린다. 대회 이후에도 참여한 많은 교회들과 학교들이 연합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교회를 향한 뜨거운 기도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라이즈업코리아 대회’는 라이즈업 특유의 강력한 찬양과 기도말씀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각 지역교회와 캠퍼스를 일으키는 라이즈업 워십, 지난 16년간의 현장사역의 노하우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인 RPS(Rise up Hanning School), 라이즈업 대안학교인 RTS아카데미 라이즈업지역대회 등을 통해 감배를 알지 못하고 해매는 이 땅의 청소년들의 가슴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뜨거운 신앙을 심어주고 있다.

이날 키오프에는 대회장 김은호 목사(오른교회)의 인사말, 이영표 CTS기독교TV 사장의 격려사, 이사장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의 설교에 이어 ‘다음 세대의 부흥과 라이즈업코리아대회’, ‘국가와 민족의 부흥을 위해’ 기도회를 가진 후 손인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2015라이즈업코리아 823대회’는 “자신을 개척하고 세상을 바꾸어라”라는 주제 아래 약 5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할 가운데 오는 8월 23일(주일) 저녁6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다.

한국기독교교회해중재원 제2회 화해중재원 포럼

한국기독교교회해중재원(이사장 파영민 목사, 원장 양인평 변호사)이 제2회 화해중재원 포럼을 1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오준수 변호사(화해중재원 운영위원) 사회로 서한제 교수(중앙대)가 ‘교회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권현서 변호사(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장)가 ‘법정 재판의 구조와 문제점’, 김리희 총회특별재판위원인 송인규 변호사(법무법인 정원 대표)가 ‘행정 재판의 구조와 문제점’, 장우진 변호사(화해중재원 부원장 겸 운영위원장)가 ‘교회 재판과 국가 재판의 관계’를 각각 발표했다.

네 명의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재판국(위)원들의 법률적 지식, 소양, 미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판결, 다수결 또는 전원합의 결정 등을 문제를 제기하며 심리·재판의 공개나 재판국(위)원 선출방식 개선, 교회법 체계 및 재판절차 정비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한제 교수는 “교회 재판은 국가법원의 형사 재판 또는 행정 재판과 유사하나, 그 목



적이 범죄자의 처벌이나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며 “또 해법 절차를 두어 회개의 점이 뚜렷하면 처리회 결의로 처리회 석상에서 지복케 한 후 해법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재판이나 재심, 총회특별재심 등의 절차를 두어 피고인이 구제받을 여려 가지 길을 열어 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교회 재판의 문제점으로는 △교회법 체계

의 혼란과 미비 △재판기관의 비전문성 △재판기관의 독립성과 공공성 △재판의 비공개성 등을 제기했다. 특히 교회법 체계에 대한선 “재판의 기준이 될 규범(교회법)이 체계나 내용상 일관성 있지 않고 혼란스럽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히 교회 분쟁의 중요 원인이 되는 교회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동일 사건에 대해 항소·상고는 물론이고 재심·총회특별재심 등 8회나 소송 제기 가능하다는 재판금 남용 문제가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분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할 것 강조

제49차 서울지역 계시록세미나

예장사랑자총회가 주최하고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신앙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제49차 서울지역 요한계시록세미나가 지난 5월 21일 오전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지동 예루살렘교회에서 열렸다.

오전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 주시는 역사’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문제선 목사는 “환난시대에도 시온의 성화에 참여한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과 요엘이 본 여호와의 신으로서 우리는 때에 맞는 신의 역사를 받아 복음의 기호를 세우자”고 강

조했다.

오후 ‘수정통치 짐승시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본 목사는 “계 13장 같이 공산주의 세력이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정통치시대로서 이것을 지배하던 짐승세력(공산주의)과 거짓선지자는 신재로 불 못에 던지우며 또한 남아있는 악인들은 최후를 맞게 된다”고 말하고, “우리는 이러한 수정통치시대의 비범을 바로 깨닫고 분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갈보리훈련원, 전국순회부흥회 발대식

22일, 요한계시록세미나도 가져



갈보리훈련원(원장 권오덕 목사)은 지난 5월 14일 오후3시 30분 예영교회(담임 김은지 목사)에서 전국순회부흥회 발대식 예배를 드리고 영성운동을 통한 한국교회 발전

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사무총장 백요한 목사 사회로 시작된 이날 발대식 감사예배에서 권오덕 목사는 메

한 이 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감옥으로 무장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갈보리훈련원은 매일 영성세미나, 계시록세미나, 전국순회 자비량 부흥활동을 통해 한국교회 복음화에 기여해오고 있다.

한편 갈보리훈련원(원장 권오덕 목사)은 지난 5월 22일 오후1시부터 4시까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1면수심실에서 제44차 요한계시록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강사인 문제선 목사는 계 19:5절을 본문으로 한 강의에서 “전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찬양하는 것으로 읊녀를 심판하는 것에 대한 공의로움에 찬양이다”고 말했다.

일본 목회자들, “과거의 잘못 사죄합니다”

‘과거사 사죄와 한일선교협력예배’가 지난달 27일 새에덴교회에서 드려졌다. 이날 예배에는 일본인 학자 및 목회자들로 구성된 ‘사죄와 화해 방문단’(단장 무라오카 타카미츠 목사)이 참석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무라오카 타카미츠 목사(세릴란트 레이턴대 교수)는 “일본은 과

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용서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라며 “일본 정치인들이 말로만 반성을 이야기하고 겉치레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것으로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다. 일본은 자신이 저지른 과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피해자들에

게 사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은 첫 걸음에 불과하다”면서 “나는 조국의 과거의 불의를 발견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그 고통을 마음에 담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12년 전부터 아시아 피해국들을 돌며 무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령강림절 맞아 연합예배 드려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김건수 목사)는 성령강림절을 맞아 지난달 24일(일) 오후 3시 제주순복음교회(담임 표순호 목사)에서 제주지방회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날 연합예배는 김한섭 목사(지방회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강수 장로(제주국제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조영일 목사(회계)의 성경봉독, 글로리아워십팀(제주순복음교회)의 특별을 통해 이어 표순호 목사(증경총회장, 제주순복음교회)가 미움의 성전을 건축하시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표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성전에서는 도끼나 철 연장 소리 같은 불협화음이 없이 서로 미움을 하나로 모아 사모함과 열정으로 심령에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므로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에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어 김건수 목사(지방회 서기)의 성령충만한 영적생활을 위한 합심기도, 정민철

목사(지방회 총무)의 광고, 김은혜 집사(순복음예수나라교회)의 특별찬양에 이어 김형수 목사(지방회장)의 봉헌기도 및 축도로 성령강림절 제주지방회 연합성회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마무리 됐다.

2015 목사안수 및 임직예배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최병진 목사)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전주 은혜와진리교회 바울 성전에서 2015 목사 안수 및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임직식을 통해 목사로 임직받은 이화숙, 서정희, 성승원, 강대홍, 표요한 목사는 맡겨진 목회 사명을 위해 충성할 것을 다짐했다.

1부 예배는 김상운 목사(지방회 총무)의 사회로 시작되어 살롬사물놀이선교단(전주 은혜와진리교회)의 특송에 이어 임종달 목사(증경총회장)가 담전 6:11-14 말씀을 본문으로 ‘너 하나님의 사립아’란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2부 서약 및 공포 시간에는 안수위원장 최병진 목사가 임직대상자를 호명하여 서약을 받은 후 안수위원들의 안수, 축의, 약속례에 이어 안수위원장이 공포하고 임직자들에게 임직증서와 임직패를 증명했다.

3부 권면과 축하의 시간에는 표재욱 목사



(직전회장)의 축사, 김종호 목사(증경회장)의 권면, 임직자 대표 이화숙 목사의 감사인사 후 임종달 목사(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임직자 대표로 감사인사를 전한 이화숙 목사는 “부족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연약한 저희를 아끼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선루배 목사님들과 동역자 여

러분들 모두와 항상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임직자 가족들 및 전지들, 교회 성도님들에게 미움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하며 “앞으로 저희가 목회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길”을 간절히 부탁했다.

이날 목사임직에서는 안수위원장으로는 최병진 목사, 안수위원으로는 김종호 목사, 표재욱 목사, 김상운 목사가 수고했다.

목사임직예배, 충성하는 사명자 다짐

경남지방회

경남지방회(회장 권우석 목사)는 지난달 28일(목) 오전 11시 엘렐렐교회(서해법 목사)에서 박성은 전도사에 대한 목사임직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는 류지석 목사(지방회 총무, 순복음서광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신동철 목사(재무, 김해순복음제자교회)의 기도, 윤성수 목사(서기, 진주은평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박영찬 목사(증경총회장)가 담후 2:15 말씀을 본문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란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2부 임직식은 지방회장 권우석 목사(증경순복음교회)의 집례로 임직자 박성은 전도사의 서약, 김경영 안수위원장을 비롯한 권우석 목사, 황용연 목사, 류지석 목사, 윤성수 목사, 신동철 목사, 류성진 목사 등 안수위원



들의 안수, 서해법 목사(엘렐렐교회)의 축의, 약속례에 이어 지방회장 권우석 목사의 임직증서와 공포 순으로 이어졌다.

계속된 권면과 축사의 시간에는 서해법 목사(엘렐렐교회)의 권면, 황용연 목사(부회장, 은혜와평강교회)의 축사, 엘렐렐청년부의 축가, 박성은 목사의 담사에 이어 신남사 목사(산달순복음교회)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박성은 목사는 담사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사명자로 부르시어 사역케 하시고 오늘 목사로 임직 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순전수범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기도록 충성하는 사명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이충만 목사) 2015년도 목사안수 및 임직예배가 지난달 30일(토) 오전 11시 성신순복음교회(담임 윤옥 전도사)에서 지방회 임원과 많은 축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드려져 복음사역자로서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전홍식 목사(순복음선기는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소영진 목사(신부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김순구 목사(사랑이넘치는교회)의 성경봉독, 총회 목대원 동기들의 특송에 이어 증경지방회장 류승창 목사가 마16:23-24 말씀을 본문으로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임직자를 축복했다.

이어 재무 임영신 목사(순복음부활교회)의 헌금기도, 박은진 지매(늘평안교회)의 헌금찬송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임직식은 지방회장 이충만 목사의 예식사, 서약, 안수위원 오일선 목사, 오승욱 목사, 황수만 목사, 원문경 목사의 안수기



도와 성의작용, 약속례 후 안수위원장 이충만 목사가 임직자에게 목사에 임직되었음을 공포하고 임직증서와 임직패를 수여했다.

계속해서 최세종 목사(기쁨이넘치는교회)와 증경지방회장 오승욱 목사(천안서복교회)가 임직자에게 권면, 교단 부총회장 조원의 목사(순복음추계교회)와 증경지방회장 김여호수가 목사(행강순복음교회)가 축사를 증경지방회장 황수만 목사(순복음나눔교회)

가 임직자들에게 격려사를 전했다.

인사 및 광고는 임직자 대표로 윤옥 목사(성신순복음교회)가 인사와 함께 안내말씀을 전하였고, 이날 임직예식은 증경지방회장 오일선 목사(순복음포도원교회)의 축도로 모두 마쳤다.

이후 기념촬영과 성신순복음교회에서 제공한 오찬을 함께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다.

순복음새희망교회 창립15주년 감사예배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정수 목사) 소속 순복음새희망교회(담임 김용 목사)는 지난달 31일(주일) 오후 3시에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고, 서리집사 임명 및 권사 임직식을 가졌다.

1부 창립 15주년 감사예배는 지방회 총무 오병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최동순 목사의 기도, 회계 신병설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증경회장 이동순 목사(한희순복음교회)가 롬 1:1-23과 살전 3:2-3을 본문으로 ‘소명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소명을 받은 자는 무엇보다도 비율처럼 자신의 부르심을 분명히 하여 복음을 위해 헌신하되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고 성령을 힘입어 오직 주께 순종함으로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2부 서리집사 임명 및 권사 임직식은 순복음새희망교회 담임 김용 목사의 집례로 먼저 6명을 서리집사로 임명하여 세우고, 이어서 3명의 권사를 안수하여 세웠다.

3부 축하와 권면의 시간에는 증경회장 이

문근 목사와 김윤용 목사가 축사, 증경회장 윤경현 목사가 권면했으며, 지방회장 김정수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애찬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순복음약속교회 안수집사 임직예배

서울서부지방회

서울서부지방회 순복음약속교회(담임 신재섭 목사)는 지난달 24일 광영전 안수집사 임직식을 가졌다.

이날 예배에서 임영철 목사(경기지방회, 승리순복음교회 담임)는 창 49:22-26 말씀을 본문으로 ‘천지대목’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직분자는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천지대목을 주신다”고 임직자를 축복했다.

축사를 전한 김영국 목사(서울남서지방회장, 구로열린교회 담임)는 “임직자는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뚜벅 뚜벅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바라보고 걸어가 평탄한 인생을 살라”고 축복해 주었다.



담임 신재섭 목사는 “순복음약속교회는 사람마를 오두막집처럼 작지만 행복과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곳으로 이 사람마에서

안수집사 임직식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라며 감사 인사말을 전했다.

월례회 및 임직예배, 아름다운 주의 일꾼 당부

경기동남지방회

경기동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이천시 윤면 오성2리 427-2 번지 오성사당교회(담임 박흥열 목사)에서 2015 목사임직예배와 함께 지방회 월례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김동문 목사(동산중앙교회)의 사회, 김남수 목사(맑은빛교회)의 대표기도, 화남순 목사(양평영광교회)의 성경봉독, 목회대학원 동기생들의 특송과 표현사 목사의 가 축하 찬양에 이어 최병일 목사(직전회장, 신형제일교회)가 담후 2:19-26을 본문으로 임직자들과 참여한 회원들에게 “교회의 중심에는 오직 성령, 말씀, 기도로 흥만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목사 안수식이 진행되어 한원화, 성백달, 김정준 목사가 임직을 받았다. 임직식 후 오규선 목사(순복음본교회)는 권면을 통해 임직대상자들에게 “언행이



임치되는 정직하고 성실한 목회자가 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이어 임직자 대표 성백달 목사는 담사를 통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실하고 착한 목회자로 서기를 원하며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인사했으며, 이원정 목사의 헌금기도, 신임 임직자들 모두의 축도로 임직예배를 모두 마쳤다.

식사 후 2부 순서로 지방회 회무 처리에

들어가 신임지방회장에 김남수 목사가 추대되었으며, 직전 임원들과 신임임원들의 인사로 2015년 지방회 임원들이 교체 되어 회원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신임회장 김남수 목사는 인사말에서 더욱 화합하고 아름다운 주의 일꾼이 되기를 다짐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모든 회원들이 되기를 당부했다.

2015 목사임직예배, 목회자의 사명 강조

서울중부지방회

서울중부지방회(회장 김순자 목사)는 지난 6일(토) 오전 11시 은혜로교회(담임 박경숙 목사)에서 목사임직예배를 드리고, 박경숙 전도사를 목사로 안수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장 김순자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손세용 목사의 기도, 이진규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이윤주 목사가 ‘목사가 할 일’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진 목사안수식은 안수위원장 김순자 목사의 집례로 열려 임직자 소개, 서약, 안수, 약속례, 축의에 이어 안수위원장 김순자 목사가 박경숙 전도사가 목사로 임직되었음을 공포하고 임직증서와 임직패를 증명했다. 이어 윤필중 목



사가 축사와 권면, 박경숙 전도사의 담사와 인사, 직전회장 김성규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날 목사안수식

에서는 안수위원장 김순자 목사를 비롯해 이윤주 목사, 윤필중 목사, 손세용 목사, 이진규 목사, 김성규 목사가 안수위원으로 수고했다.

■ 생명의 말씀 ■



김기인 목사

· 경기남지방회장
· 벨엘순복음교회 담임

생명의 귀중함을 알자

(막 5:1~20)

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전 마 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 아 바다에서 물사하지늘 ...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 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 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 랍게 여기더라(막5:1-20)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막5:1-20) 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귀한 것은 귀하게 간직하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애착은 강하면서도 삶에 대한 바른 자세가 성립되 어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현혹되어 순간순간 방 황하고 귀한 생명과 바꾸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의 하나인 거라서 지방 전도여행을 가셨던 때 일입니다. 예 수님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무덤 사이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 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서 나오라!”라고 명하시며 귀신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나?”고 물으시니,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귀신들이 두려워하며 제 발 이 지방에서 내쫓겨 말고 돼지 떼에 들 어가게 해 달라고 청하자 예수님이 허락하 시니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 돼지 떼에 들 어가니 돼지 이전 마리가 물에 빠져 물살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하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 니다.

첫째, 생명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단 한 번의 기회만 부여됩니다.

우리의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중 손이나 발이나 콩팥 같은 것들은 두개이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도 불편하지만 살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이기애 하나가 없어지면 육체를 부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 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람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둘째, 생명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 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 외에는 다른 사람 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끼 고 사랑하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식 이라 하더라도 그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천 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 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 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돼지 이전 마리를 버리시면 서 한 생명을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생명은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대신 살아 줄 수 없 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 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 기 를 바랍니다.

셋째,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 로 존재하게 되었지만, 특별히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신 값진 생명을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생명이었습 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어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 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 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 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생명 하나님 앞에 칭찬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내 생명을 내 것 인양 함부로 포기하고 경시하는 풍조와 내 몸을 소중히 생각지 않아 질병으로부터 무의미하게 던 제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생명의 가치를 높이 여기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 정

CBS 9대 한용길 사장 취임



CBS 제8대 이재천 사장과 제9대 한용길 사장의 이·취임예배 가 지난 1일 서울 목 동 CBS 공개홀에서 드려졌다. 한 용길

CBS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 교회의 부흥을 돕는 동반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올바르고 당당한 정도 언론으 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CTS, 5기 알리미 선발



아세아연합신학 대학교(ACTS)는 학 교의 얼굴로서 홍보

를 담당하게 될 제5 기 ACTS 알리미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 선발된 알리미들은 학교와 교 회, 각 기관을 방문해 ACTS를 직접 흥

보하고, SNS와 블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ACTS의 인지도와 위상 제고에 주

력하게 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해 교회가요



기독교윤리실천운 동(이사장 홍정길)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6월 1일부

터 한 달 간 ‘대중교 통으로 교회가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6

월 7일 환경주일을 맞아 진행되는 것

으로 기윤실 관계자는 “이 캠페인을

통해 예배 후 발생하는 교통대란과 주

차대란 등으로 인한 과도한 에너지 사

용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성 신임총회장 유동선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 회 총회는 지난 달

26~28일까지 전주 바

울교회에서 제109년차

총회를 개최해 신임총

회장에 유동선 목사(춘

천중앙교회)를 추대했다. 유동선牧사는

“불열된 교단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최선

을 다하겠다. 또한 타교단과의 협력을 통

해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에 기여하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동성애 결혼식 영화가 12세 이상 관람용?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지 난 4월 28일 동성애자의 동성결혼을 다류 로 만든 ‘파이퍼에웨딩’을 12세 이상이면 관람하도록 등급 분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로는 ‘영상의 표현에 있어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공개 결혼식 준비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청소년이 이해하 는데 어려움이 없이 경미하게 표현된 수 준 으로 12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의 ‘제한상영가’에는 ‘전전 성/폭력성/사회성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 가 있어,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 규정하고 있는 <영 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9조> 내용과 상충하고 있다.

이 영화는 이 규정에서 저촉되는 영화이 다. 동성애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이지도

않고, 국민 정서와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 며, 특히 성적 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 은 12세의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더욱 위험 한 영상물이다.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을 정상적 사람이 나 결혼이나 가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 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 장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동성 간 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에 나 오는 주인공도 동성결혼 이후에 구청에 혼 인신고를 했지만, 반려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성애물 영화 를 12세 청소년들이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 등급분류 소위원회 7인이 결정)의 단일한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영화 는 성인물로도 인정할 수 없는 가정 파괴적 이고, 우리 사회 합법적 가치 질서와 건전한

윤리를 무시하는 반사회적 영상물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즉각 이런 분류결 정을 취소해야 하고, 이에 영화 상영의 금 지를 명령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와 질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다져지는 것이다. 어 떤 사건이 있었다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사 회가 다 수용할 수도 정당화 할 수도 없다. 또 이를 강제하거나 강요해서도 안 된다.

더군다나 호기심과 자기 판단이 명확하 서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동성 애 영화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결국 동성에 를 조장하므로 수많은 청소년들을 동성에 위험에 빠트릴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 물 립을 재촉할 뿐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에이즈 환자 증가가 가파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 영화는 6월 4일 개봉할 것으로 예 정 하고 있으며, 학부모 세대들에게 거센 저항 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CTS, 아프리카 교육기부 업무협약 체결

아프리카 다음세대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



CTS기독교TV(회장 강경철 ‘이하 CTS’)는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 화회관 세종홀에서 백석대학교, 대한예수 교장로회 백석총회, (사)글로벌청소년나눔 운동, 르완다기독교총연합회 등의 기관과 ‘아프리카 유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 다음세대 바로세우기 운동(교육기부, 재능기부, 후원) 추진 △ 보유 중언자산, 전분지식 과 기술 인력등을 활용 하여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상호 협력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협약식 에 참석한 CTS 이영표 사장은 축사를 통해 “아프리카 르완다 다음세대 바로세우기 운 동에 적극 협력하며 다양한 교육 기부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는데 CTS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사)글로벌청 소년나눔운동은 아프리카 희망프로젝트 염소은행을 운영해 르완다, 우간다를 비롯 해 아프리카 53개국 빈곤가정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 수 교 대 한
하나님의성회

제64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 아 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4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2015년 6월 29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 02-2675-5181~3)

2015년 6월 9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진 등 용
총 무 목사 김 병 목

목양칼럼 이환 권 목사 // 일본 카시마순복음교회 담임

율법을 이루고자 살인을 꾀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마 12:14)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정체성에 심히 위배되는 의중과 행동을 묘사하는 마태의 기록은 참으로 씁쓸하고 경악스럽다. 그들이 이러한 악행을 도모하게 된 배경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두개의 사건과 연결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픔을 인해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며, 두 번째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신 일이다. 바리새인들은 이 두 사건 모두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며 예수님을 비난했었다. 그러나 율법의 규정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다.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었고(신 23:25), 안식일에 곡식을 수확한 것도 아니었다(출 34:21).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해석적 틀과 유대적 전통을 방치하여 불법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예수님은 성경에 근거하여 그 적법성을 네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해주셨다. 1)다윗의 예(8-4) 2)제사장들의 예(6) 3)선지자들에게 근거한 증명(7) 4)자신을 통한 증명(6,8)이 그것이다. 이 네 개의 명료한 논증과 더불어 예수님은 “너희가 (율법을) 잊지 못하였느냐(3,5)”라고 물으심으로써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깨달음과 분별을 촉구하셨다.

자기 외에 빠진 그들의 마음에는 분별과 겸손이 없었던 그들은 이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 묻는다. 불법임을 짓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음을 말씀하시며 고쳐 주셨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행하지 않았고 말씀으로부터 명확함으로써 그들이 옳지 않음을 폭로하셨다.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보다 자신들의 종교적 체제에 더 충성된 자들이었다. 그들의 특징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걸쳐 집요한 훼방꾼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셨고 분별을 촉구하셨다.

구하셨다(마 12:5-8).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아 송사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율법적 의와 합법성을 방치하여 주장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의 말을 트집 잡고 회당 등의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율음과 옳지 않음을 논하며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예수님을 불의한 자로 매도했다.

이러한 그들의 행태는 진리와 옳음에 대한 추구가거나 그들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의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행태는 예수님과 그분을 지지하고 따르려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분열과 혼란을 획책하여 자신들의 악한 꾀를 이루려는 것에 불과했다. 그들의 실상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며(막 16:14), 정의와 공평과 믿음은 자비하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었음을(마 23:23)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의 흥겨와 욕망이 깊은 만큼 그들의 자기 의적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예수님의 사역과 선량한 백성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자신들의 흥겨를 관철하고자 한 것이다(cf. 마 23:25-33). 언제나 관용과 사랑으로 용납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한계를 아셨지만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관용과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적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체를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교활한 위선과 자기 의적 처신으로 선량한 백성들의 마음에 불만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저의와 태도를 폭로하셨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체제를 강화하고 백성과 종교적 율례를 방치하여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함을 알고 계셨다(cf. 마 23:2). 그들은 예수님의 진실함과 참된 성품마저도 억압하려는 간교한 자들이었다(cf. 마 22:16). 그러므로 계속 용납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결핍이 되며 백성들에게 해가 될

것을 아시고 잘못을 명백히 지적하시며 폭로하셨던 것이다.

흔히들 толеранс(tolerance)는 영tolerance(intolerance)에 대한 갈이라고 한다. 정치적 종교적 영역의 포지션(position)에 따라 적용 초점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말은 기본적으로 관용과 이해의 중요한 가치도 그것을 대적하는 불관용과 이집으로 이설(異說)을 통해 참된 가치와 화합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같은 그들의 악함에 대한 폭로였다.

참된 관용과 사랑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 악한 이설과 자신만을 중심에 둔 교만하고 불의한 의도는 폭로되어야 한다. 그리고 폭로는 이제 명백한 결단을 요구한다. 인정하고 돌아져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악함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것인가. 바리새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후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해 흥겨를 꾸민다(마 12:14).

이 맥락에서 마가는 그들이 입만 열면 떠드는 율법을 거스르는 살인모의로 나아가는 가운데 헤롯당과 함께 모의했다고 폭로하고 있다(막 3:6).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시 1:1). 애매모호함이 미덕인 것 같은 시대에 우리는 악을 폭로하고 의에 거함으로써 예수님의 공동체에 참된 толеранс를 신장시키고 구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말뿐이 아닌 합당한 행실로 악을 대적해야 한다.

화합을 말하면서 분란을 획책하는 것, 말로는 교단의 미래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교단의 화합을 훼방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단의 머리아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교단의 교리적, 윤리적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온선 칼럼 문찬우 목사 // 경기북지방회 온선교회, 고 문오장 목사의 아들
Canada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B, A), 호서대 신학박사 (Th.D)

경험과 경험너머

(욥 42: 5)



2014년에 노벨 문학상을 차지한 피트릭 모디아노(Patrick Modiano, 프랑스 작가, 1945-)의 소설 (어두운 상징들의 거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한 퇴역탐정이 자신의 소멸된 자아를 추적하려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한 인간의 정체성까지 파괴하는 전쟁(세계 2차 대전)의 문제뿐 아니라, 나아가 한 인간의 삶이란 과연 무엇을 남기는가하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독촉하면서도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억상실증(амnesia)이라는 독특한 설정 때문에 본 소설의 주인공이 겪는 일들은 복잡하면서도 흥미롭습니다. 주인공 기는 무엇보다 우선 자신의 이름을 찾아갑니다. 맨 처음 그의 이름은 기 톨랑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그가 기억을 잃어버린 직후에 그가 만난 흥신소 사장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찾는 과정 중에 자신이 프레디라는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자신은 프레디가 아닌 페드로였음을 알게 됩니다.(본 소설은 그것마저 100%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인공은 자신의 국적을 알아내려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프랑스인으로 알고 있다가, 저출 남미인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인으로, 결국에는 그리스인으로 자신의 국적을 수정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랑의 대상까지도 수정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프레디 인줄로 알고 있을 때는 자신이 사랑한 연인을 게이 오토로프로 생각했으나, 자신이 페드로라고 알게 된 뒤에는 드니즈로 수정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생각하는 가운데 한 가지의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나로 만드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만일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나를 찾는 과정 중에 전혀 다른 인물을 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재설정(reset)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니 연인도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이 바뀌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각도, 그로 인해 내 삶의 방향도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경험이란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의 경험들과 나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험들을 하기 전의 나와 경험을 한뒤의 나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람인 셈입니다.

그것이 사랑에 빠졌던 경험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경험이란, 큰 성취와 성공의 경험이란, 그 반대로 실패와 상실의 경험이란, 경험은 우리의 인격과 영혼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일본의 철학자 후지타 마사카쓰(藤田正勝)가 저술한 해탈사전이라는 책에서 ‘경험’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은 현실성에 대한 가장 가까운 의식인 경험과 더불어 시작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넘어서고 고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경험이란 사람의 내면을 만들어가지만 그 경험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모진 고난을 경험했던 구약의 용이아말로 경험으로 만들어지고, 경험으로 다시 태어나서, 결국 경험을 넘어서 그 무엇을 얻어내었던 성경의 대표적인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시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욥42:5). 고난의 경험이 단지 상처가 아닌 귀한 영적 통찰과 신앙이 되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경험의 세계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강의를 양승헌 목사 // 세대교교회 담임, 전 파이디온선교회 대표

가정과 함께 세워야 한다

교회에서의 교육은 가정에서의 교육과 통합되어야만 한다. 부모가 동원되지 않는 한 교회의 교육은 한 손으로 손뼉치기 하는 것과 같다. 교회에서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는 믿지 않는 가정이나 믿음의 세대로 서지 못한 가정들의 자녀들에게 제2의 가정이며 제2의 부모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바른 진리라는 에너지와 가정에서의 부모의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합성될 때 우리의 다음세대는 건강한 믿음의 세대로 지랄 수 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다음세대에게 믿음

을 물려주는 1번지 통로는 가정이다. 모세는 그 원리와 전략을 신명기 6:4-9에서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다.

나는 이 귀절을 다음세대 사역의 중심축으로 여긴다. 이 본문은 L자로 시작하는 네 동사의 기동 위에서 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참 하나님을 알고(Learn),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Love),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써(Live),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그 다음세대에게 물려주는(Leave) 것이었다.

알라(Learn)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게해 줄 수 있다. 거의 모든 언어 장에는 청각장애로부터 온다고 한다. 들어야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가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알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다음세대에게 알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끊임 없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여야 하는 이유는 성경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다.

사랑하라(Love)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다음세대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 왜 그러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크리스천의 가치는 그가 모신 예수님께 그가 부여하는 가치로 결정된다. 예수님을 시시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시시한 크리스천이 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존귀한 크리스천이 된다. 사두엘상 2:30절은 말한다. “너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살라(Live)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음이다. 그 기준음에 맞추어 삶을 연주할 때, 수평적으로는 주변의 이방인들이, 수직적으로는 가정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고 그의 영광의 나라 안으로 이끌려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부모가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기독교 교육자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방법은 모델링이다. 믿음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불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다. 바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을 삶으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그것은 아이들을 세우기 전에 자신을 세우는 축복이 된다.

물려주라(Leave)

우리 인생은 계주다. 우리는 이 믿음의 스토리를 전달해 주기 위해 이 땅에 남겨져 있다. 이 생명의 스토리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못한 채 그라운드를 떠난다면 우리 경주는 실격이다. 가정은 하늘 나라의 대사관이다. 하늘을 비치는 거울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전달하는 증거 기관이다. 우리 자신이 바른 가정을 세우는 것, 우리 자녀들이 바른 가정을 세우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전략이어야 한다.

목회담당 부목사 청빙

(현 담임목사는 선교담당)

2년 후 조건 없이(단 교인투표 2/3 가결) 담임목사로 위임함.

자 격	목회 경력 5년 이상, 66년 이후 출생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마감	2015년 6월 30일(화)까지
보 낼 곳	qusghk1@hanmail.net

울산사랑의교회

http://ulsansrch.onmam.com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우는’ 목회자 컨퍼런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강 사
김기진 목사
(010-4112-9313)

약력
제천순복음안교교회 담임
예하성 순복음부흥사회 부회장
제천시교경협의회 회장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동두천 컨퍼런스

일 시 매달 셋째주 화요일 오후 2시, 저녁 7시

장 소 순복음진리교회 (김바울 목사 시무, H.P 010-8652-9340)

부산 컨퍼런스

일 시 매달 넷째주 월요일 오후 2시, 저녁 7시

장 소 세계열방교회 (김금남 목사 시무, H.P 010-8259-2090)

부산 치유집회 일정

일 시 매달 넷째주 화요일 오후 2시, 저녁 7시

장 소 부산시내산기도원 (박영은 원장, H.P 010-6573-3490)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사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본 교단 소속 사역자들은 목사안수를 위하여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정자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자질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를 양성한다.

● 원훈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1. 모집학과 및 지원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년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4학기 40학점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각1통)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장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추천서
- ④ 반명함판 사진 6매(3개월 이내 촬영)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여부

3.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4.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수시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 ③ 원서접수 : 수시접수
- ④ 면접 : 개별통보
- ⑤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5. 전형료 및 입금계좌번호

* 전형료 50,000원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6.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 Master of Ministry, 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고 교단 목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한다.
- ③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되면 합격을 하였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④ 기타 상세한 문외는 본 대학원 행정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⑤ 접수방법 : 지원자는 대학원 홈페이지(www.agpgs.or.kr)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전형료는 계좌에 입금.

● 입학상담 및 문의

☎ 직통 (02)2677-0692~3, FAX (02)711-995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홈페이지 : www.agpgs.or.kr, E-Mail : agpgs@hanmail.net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CONTENT
www.contentorgan.co.kr



유럽의 전통 CONTENT(콘텐츠) 오르간

- ▶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재현합니다.
- ▶ 전세계 60여 나라에서 선택하였습니다.
- ▶ 오르간 몸체를 원목으로 제작합니다.
- ▶ 구매자의 특별 주문제작 서비스 합니다.
- ▶ 10년간 무상 A/S를 책임집니다.
- ▶ 비전공 반주자 교육을 책임집니다.
- ▶ 거품없는 진실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CONTENT 오르간 적정 예상가격

(단위/만원)

300석 내외	800 → 1,200	700석 내외	1,500 → 3,000	1,500석 내외	3,000 → 7,000
500석 내외	800 → 1,500	1,000석 내외	2,000 → 5,000	2,000석 내외	3,000 → 선택

(주)네오무역 CONTENT KOREA 오르간 상담: 010-3746-8497 02)536-8213 24시간 A/S센터 : 080-222-2009

남일공예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50년 전통의 남일공예 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학년도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주·야간)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오순절 신학의 정립과 21세기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설립을 위해 헌신할 거룩하고 충성된 일꾼을 양성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본 신학교는 아래와 같은 교육목표에 따라 교단의 일꾼들을 양육한다.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육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④ 선교현장의 실천적 자로개발과 제공

● 교훈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1. 신·편입생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입생 (신학과)	4년 8학기 12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편입생		4년제 대학졸업자는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는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을 원할 경우 해당 학년별로 편입가능

2. 제출서류(각1통)

-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 성적 증명서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건강진단서(HIV포함)
- ⑥ 반명함판 사진 6매(3개월 이내 촬영)
- ⑦ 신앙고백서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수시교부
- ② 원서교부처: 본 신학교 행정실 및 신학교 홈페이지
- ③ 원서접수: 수시접수
- ④ 필기시험 및 면접: 개별통보
- ⑤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 ⑥ 합격자 등록기간: 개별통보
- ⑦ 전형료: 30,000원
- ⑧ 등록계좌번호: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본교 행정실 방문

● 입학상담 및 문의

☎ 직통 (02)2677-0692~3, FAX (02)711-995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홈페이지: www.agpgs.or.kr, E-Mail: agpgs@hanmail.net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모회 정기월례회

|일시| 2015년 6월 29일(월) 오후 1시 |장소| 총회본부 3층 성전
(12시부터 점심식사 1시 정기월례회)



고문 박희숙
성문교회



고문 최혜선
다락방교회



고문 김양숙
은혜와진리교회



증경회장 김정희
제주순복음교회



증경회장 김양란
포항안디옥교회



증경회장 차경애
진주은평교회



직전회장 김명숙
순복음거제중앙교회



회장 신동신
청신교회



1부회장 전희순
제주국제순복음교회



2부회장 차주련
안동성곡교회



총무 박경미
순복음승리교회



협동총무 최선희
예수나라교회



서기 오숙희
봉담밝은빛교회



부서기 김귀순
아세아순복음교회



회계 조경애
순복음약속교회



부회계 서수영
은혜충만교회



감사 이은숙
순복음마누엘교회

● 참석대상 ●
사모회 임원 및
각 지방회장 사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연합회 회장 신동신 · 총무 박경미 (010-2167-7422)

최첨단 봉안 시스템 DSTL

설치 사례 I

설치 사례 II



안치 절차



○ 화장터 화장 ○ 봉골(목) ○ 진공함 내 유골 밀봉 ○ 진공함 진공 ○ 진공함에 유골 부착 ○ 진공함 크리스탈 함에 삽입 ○ 크리스탈 함 UV접착 밀봉 ○ 세정후 안치

- 교회의 성장과 재도약을 위한 교회 전용 추모관 건축
- 종교시설의 인허가가 용이해졌습니다.

DSTL 봉안당 시스템의 특징



이중 밀봉방식으로 유골의 부패와 변질이 전혀 없는 봉안시스템 (특허 제 10-1236852호)

- ▶ 진공함에 유골을 넣고 1차 밀봉한 후 진공처리
- ▶ 진공된 함을 크리스탈 함에 넣고 UV접착으로 2차 밀봉



안치단은 터치스위치로 하부 LED가 점등되어 크리스탈 함 집중 조명 (특허 제 10-1236853호)

美空 Space Aesthetics
學間 공간미학

본 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11 5층
대표전화: 032)433-3551 / FAX: 032)433-3552

K F&D 코리아에프엔디
Korea Funeral & Development

본 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23
대표전화: 1899-1659 / FAX: 032)512-0925

해외입양인들에게 정체성과 자긍심 심어

진흥문화, 25명 해외입양인 초청 모국방문행사 개최



주)진흥문화(회장 박경진 장로)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8박 9일간 해외 한국입양인(만 18세~30세)을 대상으로 제 20회 해외입양인초청모국방문 행사를 개최했다.

해외 가정에 입양되어 살고 있는 청소년 및 입양가족에게 한국의 역사 및 문화와 유적지를 소개하고 입양인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건강한 세계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열린 이번 행사는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호주 등지에서 총 29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6월 2일 한국도착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평화전망대 견학과 철책선 걷기, 북한산 올레길 등반, 한국음식과 전통문화 체험, 주일예배, 서울 관광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6월 6일에는 꽃제 교회에서 열린 진흥 창사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감사예배를 드리고 축하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

1976년 창립 기독교 서적 제작과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는 한편 한국기독교 역사를 담은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을 운영하는 기독교 문화기업 진흥문화(주)는 1996년 해외입양인초청 모국방문 행사를 주최 지난 20년간 총 400명의 입양 한국인들에게 생모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한국문화를 체험케 함으로써 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자긍



심을 심어주고 있다. 한편 이들이 국내에 머무는 동안의 숙식과 이동 을 포함한 모든 행사비용은 진흥문화가 부담했다. www.jhl004.com

잠자는 기도원·교회를 깨운다

유순임 목사 '대한민국 기도제단' 설립

유순임 목사(반석침례교회 원로)가 설립한 '대한민국 기도제단'의 개원예배가 지난 1일 오후 2시 반석침례교회에서 드려져 '잠자는 기도원, 잠자는 한국교회, 잠자는 세계교회'를 깨우는 일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1부 개원예배에는 김대중 목사(반석침례교회) 사회로 김정숙 목사(반석침례교회 2대 회장)의 기도, 앨링중장단의 특송, 고승혁 목사의 창·9:26~29절을 본문으로 한 '동방의 역사'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고승혁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는 역사가 대한민국 기도제단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 자리가 이러한 기도의 불길을 지펴주는 원원이자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계속된 예배는 김명자 목사(열린교회 교무)·이길자

목사(민족복음화여성운동본부 대표회장)·이혜원 국회 의원의 축사, 고승혁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2부 특별순서 시간에는 류기형 장로(반석침례교회 원로장로)의 환영인사, 예성 선교무용단의 찬양에 이어 특별간증시간도 가졌으며, 이경수 권사(반석침례교회 36년 전도자)와 분화원 장로(텔런트)·한인수 장로(텔런트)·최선자 권사(텔런트)가 나와 '방 끝까지 순종', '주님의 텔런트', '오직 예수 오늘까지!'라는 제목으로 간증해 참석자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정은 목사의 인도로 특별기도시간도 갖고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 '남북 통일과 교계연합을 위해', '종북 세력과 동성애문제 해결을 위해' 합심기도를 했다.



한장총-미래군선교네트워크 업무협약

비전70 사랑마을네트워크 프로젝트 일환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수원 목사)와 미래군 선교네트워크대표 김경원 목사가 지난 2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 한장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전70 사랑마을네트워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광복70년을 보내며 앞으로의 비전70을 제시한 사랑마을네트워크를 통하여 교계와 사회에 사랑 나눔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 통일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로, 1차 30여 개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제7회 '장로교의 날' 대회에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한장총 대표회장 황수원 목사와 미래군선교네트워크 사무총장 윤병국 목사는 조인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미래군선교네트워크에서는 사무국장 오준호 목

사, 군선교사 조동섭 목사가 함께했고, 한장총에서는 오지용 목사(광복70주년사업단장), 김명일 목사(사무총장), 조성제 장로(회계)가 배석했다.

황수원 목사는 "남북이 통일은 사람이 없이는 어떤 정치, 외교, 군사적인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면서 "이번 업무 협약을 하는 미래군선교네트워크는 부족한 군종목사자리를 지원하여 자비량 민간인 군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에 교계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동과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미래군선교네트워크 윤병국 사무총장은 교계와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주도하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국가와 통일의 문제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다.



학교 협력사업과 공익사업 위해 협약

월드비전-EBS MOU체결, 더 '큰 나눔' 실천 계기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지난 달 18일 학교협력사업 및 공익관련 사업 공동수행을 위해 EBS(사장 신용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주요내용은 ▲ 학교협력사업 관련 공동 홍보 마케팅 및 캠페인 전개 ▲ 공익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제언 및 공동 제작 추진 ▲ 기타 공익사업 관련 상호협력 진행 등이다.

월드비전 전영소 국내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두 기관이 힘을 합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길 기대한다"며 "특히 '나눔 문화 확산'과 '행복한 교실, 행복한 학교' 만들기 등을 위해 함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BS 신용섭 사장은 월드비전과의 이번 협약은 "지금까지 두 기관이 함께 해왔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보다 더 '큰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드비전과 EBS는 해외사업으로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을 공동 기획 제작하고 있으며, 국내 사업으로 학교폭력예방캠페인 <교실에서 찾은 희망>을 공동 주최하고 있다.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대표 김국태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한 것은 고혈압에 안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바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갯수가 잘 빠진 2013~ 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다량구매 특별 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목사임직예배, 맡겨진 사명 위해 헌신 다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 2015 목사임직예배가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주사랑순복음교회(담임 배종화 목사)에서 드려져, 강신홍 배종화 신임 전도사가 목사로 안수받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신동숙 목사의 사회, 서기 김효신 목사의 기도, 회계 정미자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마 14:22-33을 본문으로 '위대한 성공과 위대한 실패'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실패와 성공은 말씀에 근거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실패와 성공은 모두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실패와 성공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임직식은 안수위원장 김기인 목사의



집례로 부회장 김남순 목사의 기도, 임직자 호명권과 서약, 안수위원들의 안수, 성의작을, 악수례, 안수위원장 김기인 목사의 공포와

임직증서와 임직패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권면과 축사, 임직자들의 인사와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순복음예정교회 임직식 및 월례회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8일(월) 오전 11시 순복음예정교회(담임 장동근 목사)에서 임직예배 및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장 신재영 목사(새김전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총무 정진학 목사(대전사랑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김광동 목사(임마누엘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증경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국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강 목사는 고전 16:15-18 말씀을 본문으로 '이런 사람들을 알아 주라'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임직자들에게 "교회 봉사자로 기도로 교회를 세워야 하며, 섬김을 작정하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진 직분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재무 윤철희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어진 2부 임직식은 담임 장동근 목사의 인도로 이날 세워진 안수집사와 권사에게 서약을 받고 지방회 목회자들의 안수기도, 담임목사의 공포와 임직패 수여가 있었다.

이어 직전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온소망교회)의 축사, 울진기독교연합회 회장 도명수(동해안순복음교회)의 권면, 임직자 대

표의 답사, 담임목사의 감사 인사, 증경회장 진영갑 목사(구미주찬양교회)의 축복기도와 축도로 예배와 임직식을 모두 마쳤다.

예배 후 순복음예정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눈 뒤 참석한 회원들은 월례회로 불령장에서 천목도모와 체력단련을 위해 땀을 흘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 모든 일정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 중·고등부 비전캠프

주제 :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찌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 이사야 49 : 15 -

모시는글

존경하는 교단산하 목사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영혼을 위해 애쓰시며, 진리를 위해 교단을 섬기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단내 미자립교회 및 소규모 청소년들을 사역하는

교회들이 지방회별로 팀을 이루어 연합하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 중·고등부 비전캠프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올림-

- 일 정 : 2015년 7월 27일(월) ~ 29일(수) 2박3일간
- 장 소 : 대림벤엘교회 평창수양관(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1길 21-4)
- 주 제 : “내 이름 아시죠”(사 49:15)
- 대 상 : 본 교단 산하 전체 교회 중·고등부
- 등 록 비 : 60,000원(식대, 숙박비, 교재비 일체 포함)
- 접수방법 : 전화 신청 후 1인당 1만원 선입금(250명 선착순 마감)
- 접수 및 문의
 - ① 대림벤엘교회 교육부 02)845-5095, FAX. 02)845-5096
 - ② 주강욱 목 사 : 010-8338-5095
 - ③ 이영옥 전도사 : 010-4206-4006
 - ④ 강수용 전도사 : 010-4466-8621
- 등록비입금 및 후원금 계좌 : 외환은행 191-18-47059-4(예금주 임형순)

고문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대회장



전동용 목사
교단 총회장
세소임교회 담임

대회본부장



김병목 목사
교단 총무
금산순복음교회 담임

진행위원장



권용덕 목사
교육국장
철원순복음교회 담임

주강사



신재영 목사
부흥사회장
새김전교회 담임

특별강사



이동진 바리스타

Guest



소울심어즈

총진행



조선남 목사
교육국 차장
대림벤엘교회

진행위원



오세준 목사
참좋은교회 담임

진행위원



주강욱 목사
대림벤엘교회

진행위원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래교회 담임

진행위원



변원식 목사
창조교회 담임

준비위원

강수용 전도사(대림벤엘교회)
오경진 전도사(대림벤엘교회)
이영옥 전도사(대림벤엘교회)
임수림 전도사(동행인교회)
권승철 전도사(남원중앙교회)
이윤규 전도사(남원중앙교회)
최철희 전도사(순복음아래교회)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 후원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및 각 지방회, 대림벤엘교회 교육부

초대시

예광 장성연 // 서예가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역임 / 현대가사문학 연구가 / 한국원로서화가 한국대표작가 / 미국 매릴랜드 초대전('98) / 미국 한국대사관 초대전('98) / 문인화 여행 外 13종 서화교본 발행 / 한국민족문화상 수상('06) / 정도 육백년 자랑 스크린시민상('94) / 기독교문화예술대상('07) / 도전 한국인상 대상 수상 /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국회) / 1998년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우수상 / 1988년 KBS 전국회화대회 금상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제4대 서울서예가협회 회장 역임

선교사의 노래 2

(선교사가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주신사명 감사로써 받아들이
믿음으로 선교하러 아골골짜기 어디든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꽃에서 건지려고
불과같은 열정으로 선교지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요 사랑의힘 원천이요
사랑없는 세상에서 빛과소금 되어져서
선교사명 실천하여 이한몸을 불태워서
협한바다 등대되어 영원한빛 되오리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상속에 빛과소금
나쁜환경 바뀌어서 생명성을 탈수있게
선교사명 가슴안고 주님사랑 전파하여
온누리가 천국으로 변화받게 하오리다

천국확장 우리책임 믿는자가 해야할일
주님사랑 널리전해 서로돕고 선교하면
좋은열매 주렁주렁 주께영광 돌리면서
선교사명 감당하여 바른길을 가오리다

입양가족 사진 동영상 공모전 ‘아름다운행복’ 시상식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에 대한 따뜻한 관심 지속 기대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대열)는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주)호텔롯데가 협찬한 제9회 입양가족 사진 동영상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의 시상식을 지난 5일 롯데호텔 갤러리(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입양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하고자 개최된 ‘아름다운 행복’ 시상식에는 홀트아동복지회 팔리홀트 이사장, 김대열 회장, 송재호 홀트홍보대사, 송용덕 롯데호텔 대표이사 사장이 함께했으며, 공모전에 참여한 입양가족 6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김대열 홀트아동복지회 회장은 “꽃들 만큼이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진 입양가족들의 사진과 동영상은 매달라가는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적시기에 충분하다며 입양에 대한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한 이번 사진 동영상 공모전은 ‘아름다운 행복’을 주제로 입양가족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 99점과 동영상 38점이 출품되었으며, 송재호 홀트홍보대사와 조세현 사진작가가 심사를 맡았다. 시상은 대상, 우수상, 입선작 등 총 20개 작



품에 대해 이뤄졌다.

사진부문에서는 대상 김지인씨의 <아이전사>를 비롯해 김영미씨의 <함께해서 행복한 공알들> 등 총 10개 작품이 우수상, 입선작으로 선정됐으며, 영상부문에서는 대상 김한수씨의 <happy things> 외

10개 작품이 우수상, 입선작으로 선정되어 상장과 함께 총 520만원의 상금을 수여 받았다. 이와 함께 (주)호텔롯데의 협찬으로 카지니아 입장권을 선물 받았다. 수상작들은 롯데호텔 갤러리에서 6월 2일 부터 7일까지 전시됐다.

사설

내우외환을 극복케 하는 교회 되자!

우리는 다가온 6.25남침 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이한 날 무명비 상태 속에서 북한 공산당의 남침행동을 당한 역사를 상기하면서 또다시 나라 걱정을 하는 시기를 맞이했다. 이 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전염병 발병까지 겹쳐 나라가 내우외환(內憂外患) 상태에 처하게 된 것 같아 우리 모두의 가슴은 한 층 아프기만 하다.

이 나라 정치계가 국민을 기롱(倨弄)하는 파탄 지경인데다 괴질까지 덮쳐 나라 안 사정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밖으로는 가까이 북한 감정은 일당이 무슨 불장난을 일으키지 않을지 위태한 상황이고 멀리는 동맹 미국이 일본을 지나치게 끼고 물면서 우리 외교안보에 더 없이 큰 걱정 근심을 안겨주고 있어 나라 바깥 사정도 걱정스러운 지경이다.

지난 5월 20일 평택의 성모병원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가 17일 후인 6월 7일엔 확진자 수가 64명으로 늘어나고 사망자 5명, 격리자 2천 수백 명에 이르렀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1천 수백여 교를 휴업·휴교하게 만들고 관광지가 한산해지며, 산업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이 병의 전염을 우려하여 노심초사해 왔다. 의학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전염병은 독감보다는 고열을 일으키지만 14세 이하의 유년층에는 전염된 사례가 거의 드물고 노인층과 40세 이상 연령층이 주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전염되는 성향이며 치사율도 40%나 된다는 일부 보도는 과장이며, 확진자 대비 7.8%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국내 첫 감염자 발생 17일 만인 6월 7일야 메르스 병 발생 또는 경우 병원 24곳을 발표하는가 하면 뒤 늦게 감염예방을 위한 재난 문자를 보내는 등의 특장 대응으로 이 같은 큰 화를 자초한 잘못에 대한 책임이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메르스란 전염병은 공기를 통한 대중 전염병이 아니고 의료기관 내 감염 경향이며, 사망자도 대부분 폐렴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기존 질환자들이고 감염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 얼마든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럼에도 마치 ‘대재앙’이라도 내린 듯이 일부 언론들이 지나치게 보도 경성을 벌이고 ‘키폭’ 문자 등 SNS 상의 사실무근

괴담이 전파되어 더욱 사회를 불안케 한 일은 매우 잘못된 일이었다.

지난 날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등등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수준도 매우 높아 비교적 잘 대처해 온 것이 사실이다. 나라가 괴질로 망할 것처럼 우왕좌왕할 일이 결코 아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메르스 극복을 위한 5대 행동 지침으로 ①열·기침 나면 무조건 마스크 착용하자, ②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자, ③격리는 잠깐이니 두려워말자, ④알면 이긴다. 불안감을 떨치자, ⑤고령·만성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자- 등을 제시하였다.

대한예방의학회 등 5개 의료 관련 단체는 “메르스는 일상적인 활동 중에는 감염되지 않으니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의료 단체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때로는 루머와 소문을 믿지 말고 보건 당국 등 관계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 개인위생과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모든 약의 근원은 바로 약한 천사의 반역에서 연유한 마귀 사단의 역사이다. “도적질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요10:10) 하나님의 사역에 대적하는 나쁜 영이 바로 사단이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자연을 부패·오염케 하며 온갖 괴질을 유발시키는 악한 피조물의 작용은 모두가 사단의 역사에서 발원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6년 전 저 공산당의 무자비한 남침과 살육전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전쟁의 잿더미가 된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 까지 떨치게 되었다. 그런데 6.25전쟁 66주년을 맞는 이 때 또다시 거짓 선동으로 국가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세력과 국가 안보를 위태케 하는 일부 부정부패 공직자들이 존재하여 나라가 불안하다.

악성 전염병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 현상을 포함하여, 국내외의 각종 내우외환들을 극복하기 위해 바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담대히 명하여 당당한 국가적 어려움을 잠재우는 일에 결연히 나서야 할 것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림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오직 외길 40년 성경연구의 결정판 / 입소문만으로 들던 그 성경! 성경 읽는 눈이 확- 열립니다!!

목회자 초청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III 무료 공개 세미나

‘프리즘문맥 키아즘성경’에 감탄하실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성경! 평생에 꼭 소유하고 싶다는 성경 出刊



강사 강 유식 목사

- 합동신학대학원 졸업 ● 말씀찬송선교회 대표 ● 프리즘성경연구원 대표
- 프리즘성경 I 편저 ● 프리즘문맥성경 II 편저 ● 프리즘문맥키아즘 성경 III 편저

제250차 공주지역

- 날 자: 6월 10일 하루
- 장 소: 순복음금강교회
- 접수비: 5,000원(식대)
- 주 소: 충남 공주시 소하동길 151-3

인터넷을 방문하여 검색해 보십시오. 15년 전에 출간한 성경 ‘프리즘문맥성경’ 1권이 80-100만원을 호가하여 거래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성경이기에...

프리즘 문맥 II *위 프리즘문맥성경 II는 15년전에 출간 공판한 성경입니다.

*프리즘문맥키아즘성경 III 공개세미나 당일에 공개합니다.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이런 성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프리즘문맥 키아즘성경 III’을 탐내는가?

1. 이 키아즘 성경을 보고 읽는 법을 배우면, 성경이 땀 뚫립니다.
2. 성경의 핵심(하나님의 긍휼)을 바로 알게 하도록 시각화에 오직 외길 40년을 바쳐서 편집된 성경으로
 -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시각화로 문맥의 의도가 한눈에 잡힘.
 - 수십 번 성경 통독으로 해결 못한 핵심 파악 문제가 쉽게 해결됨.
 - 12책 ‘대화 묵기’로 인쇄되어 내용파악이 쉬워짐.(구속사적 사건과 인물이 시각적으로 정리되어 내용파악이 가일층 쉬워짐)
3. 설교자의 고민, 설교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해결됩니다.
4.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칭적 구조를 시각적으로 구별함으로써 핵심을 드러내는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행운권 추첨 : 접수순 100분 가운데 마지막까지 참석하신 분에 한하여 추첨. 3명에게 본 성경(권당 120만원 상당)을 무료증정

상담전화

010-5117-8291, (041)881-0010

설교



조용목 목사
은혜와 진리교회 담임
교단 정책위원장



진등용 목사
새소망교회 담임
교단 총회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4차 총회 총회장 진등용 목사 취임 감사예배

초·대·의·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금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님
과 증경총회장님들을 모시고 부족한 중의 총회장 취임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총회원 여러분
들을 초대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광고 지면으로 초대장을 대신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일시 2015년 7월 20일(월) 오전 11시

장소 새소망교회(담임 진등용 목사)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교회 : 041)545-4540 H.P : 010-7406-4540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5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표 순 호 목사)

순복음제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주 소 : 제주도 제주시 천수동로 16
- T E L : 064)752-0843, 010-3693-0843
- F A X : 064)722-2605
- e-mail : 4646cce@hanmail.net



(학장 최 철 권 목사)

순복음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35번길 34
- T E L : 051)896-9191
- F A X : 051)581-0198
- e-mail : fgbtc@hanmail.net



(학장 김 임 복 목사)

순복음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010-5614-2004
- F A X : 062)956-1007



(학장 임 종 달 목사)

순복음전북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금 제도, 본 교단 총회 신학, 목회대학원 진학, 목사교시 응시자격 부여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
- T E L : 063)251-3978~9
- F A X : 063)251-3980
- e-mail : sunshalom@naver.com



(학장 김 상 용 목사)

순복음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순복음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여 목사 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이 규 호 목사)

순복음강원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동길 54-91
- T E L : 033)345-2020
- e-mail : li4499@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